

밸류업·실적·정책 ‘삼박자’… 한화에어로 ‘황제주’ 눈앞

(주당 100만원 이상 주식)

시가총액 44조 넘어 52주 신고가 주가 6.36% ↑, 93만6000원 마감

4년간 11조 해외투자, 현금배당 등 ‘밸류업 계획’ 신뢰회복·핵심동력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시가총액이 44조원을 넘어서며, KB금융과 현대차를 제치고 코스피 시총 5위 자리 굳히기에 들어갔다. 실적 턴어라운드와 이재명(국민주권) 정부의 방산 육성 정책까지 맞물리며 ‘황제주’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 거래일 대비 6.36% 오른 93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는 95만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시장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4일 발표한 밸류업 계획이 이번 주가 급등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는 공시를 통해 향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년간 11조원 규모의 해외 투자, 연간 3500원 이상 현금배당, 주주가치 제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1956억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 3월 국내 증시 사상 최대인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직후 주가가

급락하며 주주 신뢰 훼손 우려에 직면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증권신고서를 정정하고 증자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공언하며 신뢰 회복에 나섰다. 이번 공시는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의 펀더멘털도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

산 부문 수출 호조로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5608억원으로 전년 동기(177억원) 대비 3068% 증가했다. 매출은 5조 4842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491억원)보다 279% 늘었다. 순이익은 2094억원으로 7954% 증가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의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엔진과 위성, 발사체, 지상무기 등 전 부문에서 고른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 중이며, 방산 전문 계열사인 한화시스템과의 시너지, 누리호·고체 발사체 등 우주 사업까지 성장성이 확장되고 있다.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은 “유럽 지역 재무장 수요 증가에 따라 K9 자주포와 천무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도 주가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K-방산을 글로벌 4대 방산강국으로 만들겠다”며 대통령 직속 방산 수

출 컨트롤타워 신설, R&D 세액감면, 소재·부품 국산화, 차세대 항공기 엔진 독자 개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실제 방위산업 담당관 직제를 경제 수석실로 이관하고, 방산 수출 전략회의도 정례화할 방침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실적 개선, 정책 수혜, 주주환원이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제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가는 약 100~110만원에 달한다.

외신들의 호평도 이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올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낸 주식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의 나토(NATO) 기여도를 문제 삼고 재무장 노력을 강화하라고 촉구한 이후 대규모(무기) 주문이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외국인 이달 3.8조 순매수… ‘삼천피’ 기대감

새 정부 증시 부양책에 베풀한 듯 골드만삭스, 투자이견 ‘비중확대’로 코스피 목표치 2900→3100 상향

외국인 투자자가 이달 들어 국내 주식시장에서 4조원 가까이 순매수했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추가로 이어지며 코스피 3000 돌파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들어유가증권시장에서3조8000억원 어치를 샀다.

새 정부가 추진할 산업 육성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 증시 부양책 등에 대한 기대감에 베풀한 것으로 분석된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한국 증

시의 장기 부진에 지친 글로벌 자금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새 대통령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수익률 제고 공약이 시장의 신뢰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증권가는 외국인들이 추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예상한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이견을 기존 ‘중립’에서 ‘비중확대’로 올리며 코스피 목표치를 2900에서 3100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다운 LS증권 연구원은 “최근 코스피 내 외국인 지분율은 31.3%”라며 “2009년 말 이후 평균 지분율이 33.1%라는 점에서 추가 순매수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동력이 붙었을 때도 외국인 지분율은 (정책 기대감에) 2023년 말 31.79%에서 지난해 3월 말 33.5%로 확대된 바 있다”며 “과거 평균치로 보면, 지난해 1분기 밸류업 사례를 참고하든 추가 매수 여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점도 외국인의 추가 매수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1원 낮아지면 코스피에서 외국인 지분율은 0.0079%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만약 환율이 1,330원까지 낮아진다고 하면 외국인 지분율은 0.565%포인트 추가로 확대될 여력도 있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해외주식 Click

서학개미, 테슬라에 공격적 투자 동시에 안전자산 美 국채 매수세

지난달 테슬라 매도 태도를 보였던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서는 테슬라 레버리지 상품에 집중 투자하며 투자심리를 반전시켰다. 변동성이 큰 테슬라에 공격적으로 베풀는 동시에,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에 대한 선호도 이어가며 꾸준히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9일 기준 서학개미들은 테슬라의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볼 2X 셰어즈’를 이날 하루에만 2억 324만달러(2772억원) 순매수했다. 지난 달부터 이달 6일까지 서학개미들은 테슬라를 3억9575만달러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차익 실현 후 레버리지 상품으로 재진입한 모습이다.

테슬라의 최근 주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 여부에 따라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고점이었던 5월 27일 362.89에서 이달 5일까지 21.55%(284.70달러) 하락했으나, 6일과 9일, 2거래일 만에 다시 8.39% 상승하며 300달러 선을 회복했다. 지난 3일 일본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법안에 대해 “역겨운 홍물”이라고 비난하면서 서학개미들이 격화됐다. 다만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 CEO에 대해 완화된 반응을 보이면서 테슬라가 급등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월가에서는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베어드 애쿼티 리서치는 전날 보고서를 통해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서학개미들은 다시 테슬라 선호 태도를 보이며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집중 매수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가장 많이 사들이 종목도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볼 2X 셰어즈로 1억8417만달러(2512억원)를 사들였으며, 사실상 9일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순매도 규모를 끌어올린 셈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IBK투자증권, 유망 중소기업 성장 지원

하이서울기업협회와 업무협약

IBK투자증권은 10일 서울시인증 유망 중소기업 ‘하이서울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하이서울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이서울기업은 서울 소재 기업 중 서울시로부터 우수한 기술력, 성장성, 글로벌 역량 등을 인증받은 1100여개 기업으로, 해외 투자유치 및 판로 개척, 컨설팅, 기업 네트워킹 확대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성장 지원을 통한 우량기업 육성 ▲자금조달 지원 및 금융 우대 혜택 제공 ▲기업공개(IPO) 등 직접금융 시장참여 지원 및 투자 활성화 ▲기업 맞춤형 재무 컨설팅 및 리서치 세미나 지원 ▲회원사 확대 및 기업성장 목적 협력사업 발굴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IBK투자증권에서 박미경 하이서울기업협회장(왼쪽),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이사가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투자증권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이사는 “IBK투자증권은 서울에서 인정받은 우수기업인 하이서울기업이 더욱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성장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자금조달 등 기업금융부터 맞춤형 컨설팅까지 적극 지원하고 꾸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신영증권

업계 첫 사망보험금 운용 ‘보험금청구권신탁’ 출시

신영증권은 10일 증권사 최초로 사망보험금을 운용하고 다양한 지급 플랜을 설계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신탁’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생명보험 계약의 사망보험금을 신탁구조로 전환하여, 신탁회사가 이를 보관·관리하고 위탁자가 사전에 지정한 조건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이러한 신탁 구조를 활용하면 기존에 보험금이 수익자에게 즉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던 방식과 달리, 위탁자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특히 이 신탁 상품을 통해 ▲수익자에게 정기적인 생활비 지급 ▲상속세 재원 마련 ▲결혼, 입학 등 주요 생애 이벤트에 따른 분할 인출 등 다양한 지급 플랜을 설계할 수 있다.

/신하은 기자

삼성증권, 임직원 위한 ‘AT WORK’ 론칭

법인 대상 ‘종합 금융 서비스’

삼성증권이 법인과 임직원을 위한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브랜드인 ‘삼성증권 AT WORK’를 론칭했다.

10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삼성증권 AT WORK’ 서비스는 법인 임직원 주식보상 프로그램 관리부터 종합 자산관리 컨설팅까지 아우르는 법인 대상 종합 금융 서비스다. 특히 스톡옵션, RSU(제한조건부 주식), ESPP(임직원 주식매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식보상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용 기능이 탑재돼 있다.

또한 법인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임직원들에게도 삼성증권의 자산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법인은 ‘AT WORK’ 서비스를 활용해, 임직원 대상 주식보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임직원은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삼성증권 AT WORK’ 서비스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실질 고객 수는 약 5만1000명, 계약을 체결한 법인 수는 316개사, 총 자산규모는 1조원이 훌쩍 넘는다.

/원관희 기자